

내포 시대 복지정책 발전 방안 모색

- 도 정책자문위 복지보건분과 토
론회...주제발표 · 토론 등 진행

충남도는 12월 3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정책자문위원회 복지보건분과 위원과 전문가, 도와 시·군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포 시대’ 충남 복지 현실을 진단하고, 복지 정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복지보건분과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공범식 도 복지보건국장의 기조발제와 분과별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충남의 복지보건 정책’을 주제로 한 1분과 토론회에서는 ▲이재완 공주대 교수가 ‘민선5기 충남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권경주 건양대 교수는 ‘충남 복지거버넌스와 지역복지의 현재와 미래’를 ▲류진석 충남대 교수는 ‘충남도 저소득 빈곤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나백주 건양대 교수는 ‘충남도 보건의료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분야별 사회복지정책’을 검토하고 발전 방안



을 찾기 위한 2분과 토론회에서는 ▲모선희 공주대 교수가 ‘충남도 노인복지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석말숙 나사렛대 교수는 ‘충남도 장애인복지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최은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은 ‘충남도 아동복지(보육·청소년)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김영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연구실장은 ‘충남도 여성, 다문화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각각 발표한 뒤 토론을 진행했다.

권희태 도 정부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복지정책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만, 다양한 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예산 등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내포시대에 맞는 민관협력 복지거버넌스 구축 등 충남복지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지원 전담부 서 가동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협
동조합 활성화 대책 추진

충남도는 12월 2일 협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1일부터 금융과 보험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과 분야에서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협동조합 조기정착과 도민들의 협동

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 경제통상실 일자리경제정책과 사회경제경제담당에서 협동조합 신고수리, 지도감독 등 제반 업무를 총괄 담당하며, 도민 인식전환 교육·홍보 등 협동조합 기반 및 생태계 조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또한 충남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인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를 통해 설립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며, 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협동조합 정책연구 및 우수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고 설립·운영 매뉴얼을 체계화해 도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해질 경우 서민·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도 2013년도 예산안 4조 9,413억원

충남도는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고 11월 6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9,500억원으로 금년보다 800억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367억원으로 780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도청사 건립관련 특별회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도 3,546억원으로 금년보다 238억원 증가하였다

2013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은 민선 5기 하반기 중점과제인 복지, 문화, 경제 및 3농혁신분야의 정책수요와 내포 신도시 조성, 도청사 건립 마무리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더불어 행복한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서비스 기반확충, 의료급여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등 1조 1,97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선진문화관광 구현을 위해서는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서해안권 광역 관광지 개발, 지역문화축제 육성 등 1,451억원을 편성하였고 사람과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 경제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1,4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농 혁신을 통한 도민이 잘사는 농촌 건설을 위해 고품질 브랜드쌀 소비촉진 기반구축, 초·중학생 무상급식, 농촌생활환경 정비 등 6,654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청사 건립 마무리 및 내포신도시 기반구축비로 내포신도시 복합 커뮤니티, 충남 보훈회관 건립,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신축 도청사 건립 및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등 479억원을 반영하였다

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민의견을 수렴·반영코자 도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도정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자체사업 예산편성관련 자문을 거쳤으며 도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ARS 전화설문, 정책 서포터즈 우편설문 등을 통해 모아진 제안사업들은 실국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하였다.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 최우수' 우뚝

- 도착금액 비율 1위 등 따라...
2002, 2008년에 이어 세 번째

충남도가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11월 1일 외국기업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 2002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은 도의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교육·의료 부분 강화와 자체 투자유치 업무기준 마련 등 투자유치 기반 확대 및 토착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탁월성을 인정받음에 따른 것이다.

주요 공적을 보면, 도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1건 5억6600만 달러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같은 기간 신고금액은 58건 7억3600만 달러, 도착금액은 9건 6억9900만 달러로, 신고금액 대비 도착금액 비율이 95%를 기록하며 전국 1위에 올랐다.

도는 또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설립 추진 ▲외투기업협의회 활성화(간담회 6회) ▲외국기업 전담 병원(천안 단국대) 지정 등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을 넓히기 위한 교육·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를 위한 4대 항목(경제효과, 환경성, 반외자 정서, 인센티브) 검토대응 ▲한·미간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대비 MOU 표



준안 마련 ▲고용창출·지역민 우선 고용·사회적 책임 명시 등 투자유치 업무기준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상생산업단지 추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3개소 지정 투자유치 제도 개선 및 문제점 처리(88건) 등 유치한 외국인 기업 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도 중점 추진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은 한번 충남을 찾은 외국인 투자자는 또다시 충남을 찾고, 충남에 자리 잡은 기업들은 도내에 뿌리 내리고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유치 전략’이 빛을 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업이 함께하고,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외국인 기업 토착화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원, '먹거리 정책 번역서 출간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박진도, 이하 '충발연')은 통합적 먹거리정책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번역서 '건강, 환경, 사회를 하나로 묶는 먹거리 정책'을 출간했다고

12월 27일 밝혔다.

이 책은 전세계적으로 먹거리정책(Food Policy) 분야의 독보적인 석학이자 1990년대 초반 '푸드마일' 개념을 처음으로 창시한 영국 런던 시립대학교 '팀 랭(Tim Lang)' 교수를 중심으로 2009년도에 집필되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먹거리정책은 현재의 분절적인 먹거리정책이 아닌 통합적인 먹거리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요즘 잘못된 먹거리로 인한 건강 문제와 산업화된 농업생산에 따른 지구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야만 한다"면서 "농업과 먹거리를 협소한 산업의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지구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건전하게 지탱하는 생명 유지의 관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생태적 건강'이란 개념으로써,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해가 아닌 시민의 이해가 먹거리체계 내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는 먹거리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글로벌 식량위기가 만성화된 지금,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칭'국가식품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 책이 농민의 소득기반을 안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적 먹거리정책'을 논의하는 단초를 제공할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충발연 허남혁 책임연구원(번역 책임)은 "먹거리 종합계획은 국가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최근 런던, 뉴욕, 토론토 등 세계적 대도시들이 지역의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데, 이는 농업과 먹거리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덧붙였다. <도서출판 파비, 518p, 25,000원>

충남발전연구원, '행복' '사회적경제' 등 2013년도 연구아젠다 발표

- 12월 11일, 전략과제 제안대회 갖고 주요 연구과제 심의·토론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 이하 '충발연')이 올해 전략과제 아젠다를 발표했다.

충발연은 지난 12월 11일 대전레전드호텔에서 올해 주요 핵심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2013년



행복 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전략연구 제안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총발언이 뽑은 2013년도 연구 아젠다는 ▲충남도민의 행복도 제고 ▲선순환 지역경제 시스템 구축 ▲충남 3대혁신(3농, 분권, 행정) 실천 전략 수립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 ▲충남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 ▲충남 현안 정책 대응 등 총 6개 분야다.

특히 총발언 박진도 원장은 “내년도 전략과제는 올해 수행했던 ‘행복’ ‘선순환’ ‘3농혁신’ 등 연구의 지속성이 필요한 과제의 실천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육성, 충남 자살실태와 예방 연구, FTA·기후변화 등 충남의 중장기적 대응 연구들이 다수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안대회에는 충남도 권희태 정부부지사, 충남도의회 김홍장 의원,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연구진 등 100여명이 참석해 원내·외에서 제안된 60개 과제 중 1차로 선정된 28개를 발표·심의했다.

한편, 총발언의 2013년도 전략과제는 이번 제안대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12월말까지 최종 선정해 1월부터 연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농어촌응원운동 “사랑촌(村) 행복파티” 개최

— 충남 홍성군 문당환경농업마을
서 ‘도농교류 활성화’와 ‘지역농
산물 소비운동’ 전개



충남농어촌 응원군 확보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와 지역농산물 소비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파워블로거와 충남농촌체험마을이 한 자리에 모였다.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 이하 ‘총발언’)은 충남농어촌응원운동본부, (사)충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랑촌(村) 행복파티”를 홍성 문당환경농업마을에서 11월 10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촌체험활동에 관심있는 도시파워블로거 30가족(약 120명)과 충남농촌체험마을 관계자 등 총 180여명이 참가해 도농가족간의 교류·소통의 장이 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아침밥상차리기 경연, 비빔밥 컨테스트, 고구마 캐기 등 체험활동, 지역농수산물 가공품 직매장 운영, 우리마을 자랑시

간 등 다채로운 행사로 치러졌으며, 마지막 순서로 '도농가족 결연식'을 갖고 충남농어촌 응원군을 결성했다.

특히,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아침밥상차리기 경연은 지역농수산물을 활용한 333아침밥상차리기 경연(3가지, 3색, 30분 조리)으로서 요즘 아침식사를 거르는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메인 행사다.

또한, 경연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는 모두 충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며 경연을 통해 충남도만의 '군침도는 아침밥상', '맛깔난 건강밥상' 등을 선정, '최고의 밥상'을 뽑기도 했다.

충남발전연구원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유학열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선정된 충청남도의 아침밥상은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는데 쓰이게 될 것이며, 도시민과 충남체험마을의 결연을 통해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도농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역사적 유산의 보존·활용과 마을 만들기」 번역서 발간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 이하 '충발연')이 역사적 유산을 이용한 일본의 마을 만들기 활동을 다룬 「역사적 유산의 보존·활용과 마을 만들기」를 번역, 발간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이 책은 역사적인 건물과 거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모범적인 마을 만들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근대 역사적 유산의 활용이 활발히 이

뤄지는 미국의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개별 역사적 유산, 근대산업 유산, 마차야, 가야부키 등을 중심으로 한 실제 활용·재생 사례와 여기에 참여한 현장 사람들의 경험담도 담겨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우리는 마을의 역사적 유산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다가 막상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책을 통해 국내에서도 역사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해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카와 나옴이·야스미치 엮음, 충남발전연구원 옮김, 368쪽, 3만4000원, 한울〉

충남발전연구원, '전통 시장 어린이 경제캠프' 실시

– 지역아동센터 학생 대상으로 현명한 소비활동 등 체험학습프로그램 제공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경제교육센터는 11월 3일 아산시 온양온천시장에서 지역아동센터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서 배우는 경제이야기”라는 주제로 어린이 경제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경제캠프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전통시장에서 배우는 경제교육을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경제캠프가 열리는 온양온천시장은 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전통시장 운영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곳이다.

충남경제교육센터 임형빈 센터장은 “이번 어린이 경제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전통시장에서의 현명한 소비생활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경제캠프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전략 연구과제 보고대회’ 24 일 개최

- 행복 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연구성과 발표·토론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 이하 ‘충발연’)은 10월 24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2012 행복 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전략연구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대회는 올해 충발연이 중점 수행하고 있는 전략연구과제의 정책활용도를 높이고 충남도정이 정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지역의 내발적 발전전략’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충발연은 총28개 전략연구과제 중 ‘충남의 행복지수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고승희), ‘충남 지역경제 선순환 실태 및 과제 (신동호), ‘충남 농업보조금 제도 개선 (강마야), ‘사회적경제 조직 간 거래 활성화 방안 (송두범), ‘지역자산을 활용한 충청남도 해비타트 모델과 적용방안 연구’ (박철희) 등 총5개 연구과제를 선정·발표하였다.

한편, 연구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시간에는 한남대 민완기 교수의 좌장으로 충남도의회 유병돈 행정자치위원장, 충남대 안기돈 교수, 중앙대 배용규 교수, 통계개발원 이희길 사무관, 충북대 김학실 연구교수, 충남도 박범인 농업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각 연구과제의 향후 발전방향과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충남도의회 유병돈 행정자치위원장은 “충발연의 전략과제 연구성과가 이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남도, 도의회 등과 지속적 논의를 거쳐 향후 도정을 이끄는 주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선도적 연구개발과 정책제안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이 전략연구과제가 충남도정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학계, 관계기관, 관계공무원, 언론계 등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